

함평군, 전라남도와 함께 미래 발전 비전 발표

6개 분야 15개 사업...총 1조 7,100억원 규모

“반드시 지역발전 성과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

이상의 함평군수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5일 전라남도청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역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함평군이 꾸준히 지역 발전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낸 끝에 이뤄낸 성과다.

이날 발표된 비전 6개 분야는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벨리,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SOC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이

다.

15개 세부 사업으로는 ▲AI 첨단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 거점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AI 연계 데이터센터 유치, ▲광역도로, 국도 23호선 및 지방도 838호선 확장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등이며 총 1조 7,100억 원 규모이다.

함평군은 이번 비전을 실현해 AI 첨단 축산업과 해양관광,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SOC 확충 및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함평 미래발전 비



전 발표는 함평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작점으로써 의미가 있다” 말하며, “오늘 발표된 사업들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행되어 반드시 지역발전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김정섭 영광 부군수, 수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김정섭 영광부군수는 지난 9월 7일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대상 부지를 찾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참조기·부세 연구기관인 서해특산시험장 시찰과 천일염 생산·가공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민선 8기 영광군의 역점사업인 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건립은 160억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대상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정상운영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서해특산시험장의 참조기·부세양식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종자 보급 확대와 우수 종 보존, 전용사료 개발 등의 연구 성과를 듣고 ‘영광굴비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조기 양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벗짚을 활용한 친환경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가공하고 있는 벼수소금의 저장장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성용 대표로부터 ‘전통 방식으로 천일염을 제조하여 영광 천일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명품 천일염을 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설명과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영광천일염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영광굴비, 영광 설도젓갈 업계 등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 농부가 휴대폰으로 찍은 무화과 홍보 영상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6~7일 센터에서 휴대폰 활용 농산물 홍보용 동영상 촬영교육을 실시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홍보용 동영상 촬영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영암군 농산물 홍보 채널 다양화,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에서 제품 판매 영상 연출가 태병원 피디는, 영암군 농업인에게 요즘 유행하는 영상촬영기법을 알렸다.

첫째 날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이론을 설명하고, 농산물을 활용한 10초 내의 영상도 제작하는 실습교육이 이어졌다.

둘째 날은 무화과 재배 농가에서 무화과

촬영, 제품 상세영상 추가 등 실제 영암군 무화과 홍보영상 제작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농업인들이 다양한 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판매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영암군 농가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판촉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 출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교통·회계·법률 등 전문가 20명 위촉
노선체계 개편·노선 공영화 등 논의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교통, 회계,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관·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시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공개모집과 시의회 추천을 통해 위촉됐다.

위원장에는 목포해양대학교 노창균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목포교육지원청 조연주 교육지원과장이 호선을 거쳐 선임됐다.

공론화 위원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체계 개편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선 공영화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확립 등 시내버스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 설문조사, 의제

선정 등을 주도하고 심도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1004섬 예술로 날다’

신안 섬 ‘문화의 달’ 행사

10월 20일부터 사흘간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섬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안군이 준비에 한창이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문화의 달 행사가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 - 1004섬 예술로 날다’란 주제로 오는 10월 20일부터 사흘간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신안군은 ‘예술로, 미래로, 바다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섬마을의 생태와 다양성, 문화를 녹여낸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먼저 전야제와 개막식이 열리는 뮤지엄파크 특설무대 일원은 행사 기간 내내 예술의 향연으로 채워진다.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임동창 총감독은 행사 첫째 날 전야제에서 ‘100+4(104대)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서남해안 도서지역 축제 문화인 ‘산다이’에서 영감을 얻은 자작곡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를 시작으로 바이엘, 찬송가, 클래식, 영화 OST, 대중가요를 재해석한 연주곡을 104명의 수준급 피아니스트와 협연한다.

뮤지엄파크 이벤트광장에서는 우리 역사사 가장 오랜 기간과 먼 거리를 표류했던 신안 우이도 출신 흥어장수 문순득의 경험담을 엮은 ‘표해시말’(漂海始末·경약전)을 극화한 공연도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박우량 군수와 ‘100+4 피아노’의 신안아리랑 공연과 압해동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비금중학교 뽀뽀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줄타기 예능 보유자 김대균과 제자들의 줄타기, 살풀이와 범고양상불, 무형문화재 심정기 보유자 신영희, 수궁가 보유자 김수연을 비롯한 8인의 명장 판소리 등이 피아노와 어우러진다.

관소리 무대 이후에는 역동적인 흥이 휘몰아치는 연주곡 ‘칠채취모리’를 임동창 피아노와 김영길 아쟁, 류경화 철현금, 최진 가야금, 이용구 대금, 김동원·김주홍 타악기, 더블베이스, 기타 협주모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마지막 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여 개 댄스팀의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경연대회와 ‘100+4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나도 피아니스트’ 무대가 마련된다.

예술섬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학술행사와 함께 신안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푸드트럭, 1004 로컬푸드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주 무대 일원에서는 줄어드는 쌀 소비 촉진과 신안 청정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제1회 신안 김밥 페스타도 사흘간 열린다.

임동창 문화의 달 행사 총감독은 “가을날 신안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축제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면서 “피아노와 섬, 그리고 섬 문화를 통해 신안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